

지상 법석

부처님 가르침은 만병 통치약”

어린 일미평등(一昧平等)한 자리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아(無我)·무소유(無所有)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아·무소유의 경계는 일체만유 그대로 진여법성의 경지입니다. 어느 것도 진여법성, 부처님 아님이 없는 자리입니다. 한 생각 잘못 비뚤어져서 '저것은 부처가 아니다, 이것은 부처다'고 분별하는 마음 자체가 체를 여의고서 상에 얽매는 미망인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선구자

따라서 모두가 부처라는, 일체공덕을 원한이 갖춘 진여불성이라는 생명의 실상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의 행위인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이 청정해 집니다. 그것이 바로 참다운 도덕입니다. 공자(孔子)나 노자(老子)나 예수나 그런 성인들의 행위도 모두가 도덕법에 따른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도덕법의 본체는 바로 참다운 철학인 우주의 도리요, 불교에서 말하면 진여불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도리는 본래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말하는 언어, 행동하는 몸짓이나 조금도 완리 도덕에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또는 음행을 한다거나 또는 음식을 함부로 먹는

비아호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자기 문중(門中)에 집착하고 자기 종단(宗團)에 얽히고 자기 공부하는 법, 내 것만이 옳다는 것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 마음은 바로 어두워지고 그지없이 옹색해집니다. 이것 자체가 전도몽상입니다. 본래 흰히 띄어서 아집(我執)도 법집(法執)도 없는 마음인 것을 구태여 지어서 '나'에 집착하고 '법'에 집착한다면 공부나 다른 사람한테나 그 무엇에도 도움이 안되며 그것이 또한 우주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로 일어나서 한사코 법성(法性)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붙이고 미망의 그물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자기 스승을 위해서나 부모를 위해서나 친구를 위해서나 어느 누구를 위해서나 이와 같이 생명의 고향인 본체로 돌아가는 그 행위가 가장 수승한 행위요, 가장 진정

의 병과 몸의 병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의 아가타약입니다.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요 일체의 존재가 바로 불법(佛法)이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는 또한 우리 중생을 굽어보고 호념(懷念)하는 것입니다. 다같은 부처이므로 부처를 생각해서 부처가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상통하고 감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아호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자기 문중(門中)에 집착하고 자기 종단(宗團)에 얽히고 자기 공부하는 법, 내 것만이 옳다는 것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 마음은 바로 어두워지고 그지없이 옹색해 집니다. 이것 자체가 전도몽상입니다. 본래 흰히 띄어서 아집(我執)도 법집(法執)도 없는 마음인 것을 구태여 지어서 '나'에 집착하고 '법'에 집착한다면 공부나 다른 사람한테나 그 무엇에도 도움이 안되며 그것이 또한 우주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현대는 개방적인 시대입니다. 아무렇게나 방만(放漫)하게 한다는 개방적인 시대가 아니라, 법에 대한 집착을 떨고 나에 대한 집착을 털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해탈을 지향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번뇌 해탈을 지향하는 시대적인 조류에 맞춰야 참된 과학에도 뛰

부처와 중생은 서로 상통 감응해야 돼 '나' '법'에 집착하는것은 곧 우주 오염

다는 것은 모두가 다 도덕을 곧 우주의 천연자연(天然自然)한 도리(道理)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도 인간성의 실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어떤 분야에서나 인간성을 탐구하는 문제가 가장 절실한 근본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성을 똑바로 깨닫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불교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아전인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수행자는 인간성을 개발하는 선구자입니다. 현대사회의 선구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도덕적으로 우리는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약해서 마음으로 다짐을 해도 미끄러지고 비틀어지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철정팔기로 죽시 다시 일어나서 나약한 자기를 추스려야 합니다. 땅에 넘어지면 다시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강인한 의지로 다시 바

한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도된 동상만 떠나면 모든 것이 한결 같이 제법(諸法)이 공(空)이요 5온(五蘊)이 개공(皆空)입니다. 범부 중생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보기 때문에 고인이 생기고 여러 가지 번뇌가 더욱 더 치성(熾盛)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래면목을 바로 참구하는 공덕보다 더 수승한 보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영양분을 많이 섭취한다면 그것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나, 가장 훌륭한 영양분, 가장 완벽한 보약은 부처님 가르침을 여법히 수행하는 일입니다. 부처님 법에다가 마음을 두고 바로 생활한다면 웬만한 문제들은 풀리는 것입니다. 진여불성에 가까울 수록 더 잘 풀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무슨 병이나 다 근본은 무명에서 오는 것이며 법성 자리에는 본래 죽음도 병

희망의 안락행(安樂行)입니다. 수행자들이 가는 길은 수많은 성현(聖賢)들이 헤치고 다져놓은 탄탄하고 활짝 트인 해탈의 대도입니다. 해탈 지향하는 시대 전도된 동상만 떠나 버리면 흰히 트인 마음으로 영생(永生)의 낙토(樂土)를 지향하여 환희왕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눈도 열려 버리면 웬만한 병은 침범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피어 있고 다만 비어 있지 않는 자리, 무량한 공덕을 갖춘 진여불성자리, 이 자리를 생각하고 그 진여불성을 여의지 않는 생활보다 더한 행복은 없습니다. 다 불경에도 아가타약을 말합니다. 아가타약은 만병 통치약입니다. 부처님 명호나 화두나, 또는 주문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법은 다 한결같이 마음

지지 않고 우리가 5욕의 수행에서 해매는 무량중생을 구제하는 진정할 보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과거 전생에 두고두고 공덕을 쌓아서 금생에 영광스러운 법의를 입었습니다. 우리들의 무상(無常)한 금생 인연이 몇 차례나 다시 만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생에 가서도 꼭 우리는 수행자가 되어서 피차 청정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생길래(多生劫來) 몇 만 생을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사코 중생 제도를 위해서 '반드시 고통 많은 사바세계에 태어나야 합니다. 그때마다 출가하여 성취하고 본래 없는 무명 다 여의고, 본래 없는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여 다 함께 성불하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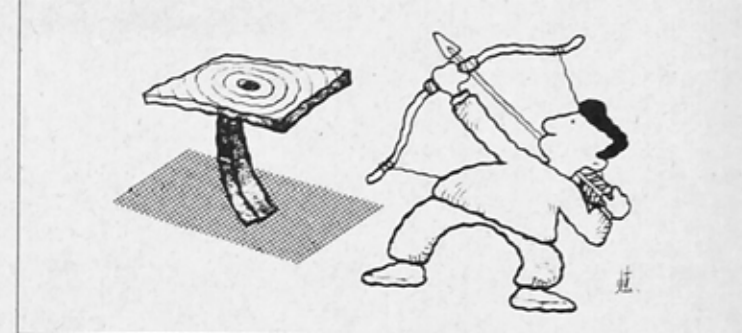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④

인과의 확률론

김성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한강줄기를 평생 동안 지켜보아도 같은 흐름을 계속한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강의 흐름을 지켜보았다면 강물 줄기가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물줄기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단지 우리들이 단편적으로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가 변하고 있는 것을 모를 뿐이다.

같은 조건에서 관자가 어디를 때릴 것인가 하는 실험을 1,000,000번 되풀이 했을 때 결과적으로 같은 위치에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십만번도 될 수 있고, 이십만번, 삼십만번, 육십만번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과의 확률론적 해석의 결정적 단서가 된다. 박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1995년 5월 12일 교통사고로 죽게 될 운명이



생각·행동 바뀌면 인과도 변해

비뚤어져 먹을 수도 없는 콩이 날 수도 있고, 빛깔도 좋고 오동통 살린 콩이 날 수도 있음도 또한 당연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과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한 번 살펴보자. 빛의 파동-입자 이중론적인 성질을 밝히는데 있어서 1924년 보어박사는 파동의 확률화라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며, 양자역학의 확립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예를들면 영의 실험에서 하나의 공자가 사지판의 어느 곳을 때릴 것인가 하는 것은 계산할 방법이 없지만 실험이 적절하게 준비되고 결과가 정확하게 측정만 된다면 공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사지판을 때릴 확률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령 A지점에 빛이 떨어질 확률이 60%라면 1,000,000번의 실험을 되풀이 할 때 600,000번 정도는 빛이 A지점에서 포착된다는 것이다.

같은 신앙을 믿고 있으면서도 도달하는 목적지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떻게 살아가든 결국에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먼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분명한 목적은 인과를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것이다. 불자들이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를 이루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 (영남대 의대교수)

불교성지순례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도 7대성지 순례)
 - 인도 네팸 11일
 - 출 발: 11월 18일, 12월 2일, 12월 16일, 12월 30일 동참금: 165만원
 - 일 정: 서울-델리(1박)-라나우-발람푸르(1박)-바라나시(1박)-보드가야(1박)-라지گیر, 나란다-파르나(1박)-바이살리, 루시나가르(1박)-룸비니(1박)-카트만푸(1박)-싱가폴 경유-서울
 - 특 전: 전문요리사 동행 한국 음식 제공, 불교성지순례 전문가이드.
 - 스리랑카 6일
 - 출 발: 11월 18일, 12월 2일, 12월 16일, 12월 30일 동참금: 108만원
 - 일 정: 서울-콜롬보(1박)-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1박)-폴른나루와, 시기리아-하바라나(1박)-넬라, 아부비하르-켄디(1박)-콜롬보(1박)-서울
 - 불탑의 나라
 - 미얀마 태국 8일
 - 출 발: 11월 18일, 12월 2일, 12월 16일, 12월 30일 동참금: 140만원
 - 일 정: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계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 불광사, 화려
 - 대만 5일
 - 출 발: 11월 18일, 12월 2일, 12월 16일, 12월 30일 동참금: 68만원
 - 일 정: 서울-타이베이(1박)-고웅(1박)-화련(1박)-타이베이(1박)-서울
 - 세계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인도네시아 5일
 - 출 발: 11월 20일, 12월 4일, 12월 18일, 1월 1일 동참금: 85만원
 - 일 정: 서울-덴파사(2박)-족자카르타(1박)-자카르타(기내박)-서울

불교성지순례 전문업체 **혜초여행사** 대표전화 (02)544-1533

약사(藥師)여래불 조성 점안식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항상 불이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 제불 보살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심에 꼭 한가지 서원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니 약사여래불은 우리 중생의 모든 병고역난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영험 도량인 해동 용궁사에서는 약사여래좌불을 조성하옵고 점안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불자님께서는 부디 동참하시어 약사여래부처님 가피력으로 병고역난을 모두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 동/참/안/내
- 각지역 접수 문의처
- 일 시: 음 11월 5일(12월 7일)
- 장 소: 해동 용궁사 약사여래전
- 중 명: 고 산 큰스님
- 기념품증정, 점안 오색실
- 문 의: 용궁사(0523)361-3165, 6166
- 교 통: 버스 1, 2, 3호 전체운행함.
- 서 울: 용진관광 279-1911-3
- 대 구: 철성관광 551-7771-3
- 대 전: 백제관광 222-5900-2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